‘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개척자’ 차준환, 또 역사 썼다

세계선수권 2위…한국 남자 선수 사상 첫 메달

4대륙선수권 金·베이징올림픽 ‘톱5’ 이어 또 쾌거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개척자로 불리는 차준환(22·고려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한 번 역사를 창조했다.

차준환은 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막을 내린 2023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경기에서 총점 296.03점을 획득, 일본의 우노 쇼마(301.1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99.64점으로 3위에 오르며 메달 기대를 부풀린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이면서 기술점수(TES) 105.65점, 예술점수(PCS) 90.74점으로 합계 196.39점을 획득,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한국 남자 선수가 피겨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차준환이 최초다.

이번 대회 이전까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수확한 한국 선수는 ‘피겨여왕’ 김연아(은퇴)가 유일했다. 김연아는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통산 6개(금 2개·은 2개·동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김연아가 2013년 금메달을 딴 이후로는 유영(수리고)이 지난해 여자 싱글 5위에 오른 것이 한국 선수의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이었고, 이번 대회에서 이해인(세화여고)이 여자 싱글 은메달을 따 명맥을 이었다.

불모지로 여겨졌던 한국 피겨는 김연아라는 걸출한 스타가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주니어 시절부터 굵직한 대회에서 입상하며 스타로 떠오른 김연아는 2007년 세계선수권에서 3위에 올라 한국 피겨 사상 첫 메달 획득에 성공했고, 2009년에는 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당시 사상 최고점이었던 228.56점으로 금메달을 따 한국 피겨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는 2010년, 2011년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고,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또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연아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판정 논란 속에 은메달을 땄다.

김연아의 등장으로 한국 피겨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남자 싱글은 여전히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한국은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싱글 출전권조차 따지 못했다.

이런 한국 피겨 남자 싱글에 개척자로 나선 것이 차준환이다.

초등학교 때 이미 트리플(3회전) 점프 5종(살코·토루프·루프·플립·러츠)을 모두 성공하며 한국 남자 피겨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주목을 받은 차준환은 2015년부터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구사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차준환은 김연아와 ‘피겨 황제’ 하뉴 유즈루(일본)를 지도한 브라이언 오서(캐나다) 코치를 만나면서 기량이 급성장했다.

2016~2017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남자 싱글 사상 최초로 메달(3위)을 목에 걸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고관절, 발목 통증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던 차준환은 발에 맞지 않는 부츠 문제까지 겹쳐 평창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가까스로 출전권을 따냈다.

평창올림픽 직전에는 독감까지 걸리는 악재를 맞았지만, 역사를 써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유일하게 평창올림픽에 나선 차준환은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를 차지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한 차준환은 2018~2019시즌 한층 성장한 모습을 자랑했다.

차준환은 2018~2019시즌 ISU 시니어 그랑프리 2, 3차 대회에서 연달아 동메달을 따냈다.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두 대회 연속 메달은 2009~2010시즌 김연아가 두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후 9년 만이었고, 남자 선수로는 처음이었다.

차준환은 해당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도 출전했다.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한 선수는 차준환이 역시 김연아 이후 9년 만, 남자 선수 역대 최초였다. 차준환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까지 따내 역사를 만들었다.

화려한 시즌을 보낸 이후 차준환은 부침을 겪었다.

쿼드러플 점프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질적인 고관절 부상은 그를 괴롭혔다. 캐나다로 떠나 오서 코치의 지도 하에 훈련하던 차준환은 코로나19 여파로 출국하지 못해 국내에서 훈련을 이어가야 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훈련을 이어간 차준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열린 202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 ‘톱10’ 진입이었다.

차준환이 세계선수권대회 10위를 차지한 덕분에 한국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2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1, 2차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자신이 가져온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쥔 차준환은 올림픽에 앞서 치른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또한 남자 싱글 사상 최초 메달이었다. 남녀 싱글을 통틀어도 4대륙선수권대회 금메달은 2009년 김연아 이후 13년 만의 일이었다.

차준환이 지난 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지난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차준환은 개인 최고점인 282.38점을 획득 5위에 올랐다. 메달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순위였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5위 이내에 든 것은 김연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 시즌 두 차례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연달아 동메달을 목에 걸며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과시한 차준환은 지난달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지만, 세계선수권에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며 쾌거를 이뤘다.

쇼트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 모두 흠 잡을 데 없는 연기였다. 쇼트프로그램에서는 ‘클린 연기’를 펼쳤고, 프리스케이팅에서는 트리플 플립에서 어텐션(에지 사용 주의) 판정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차준환이 은메달을 따면서 내년에 한국은 처음으로 피겨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 3명의 선수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ISU는 세계선수권에 한 국가에서 1명이 출전할 경우 2위 내에 들면 다음 년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3장 준다. 10위 이내면 2장, 11위 이하면 1장을 배분한다.

뉴시스

24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경기, 손흥민이 경기 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대화하고 있다.

콘테 전술로 손흥민에 채워진 족쇄, 클린스만이 풀었다

콜롬비아전 후 손흥민 프리롤 공개

손흥민(31)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맹활약한 가운데 그 비결이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프리롤(free role) 전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축구대표팀 A매치 평가전에서 전후반을 모두 뛰며 두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상대 골키퍼 실수를 놓치지 않고 왼발 중거리 골을 넣었고 전반 추가시간에는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드리블 후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에게 특정 포지션에 구애되지 않는 프리롤(free role)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관해 “중앙이든 측면이든 공격진에 포진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으로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서 한다면 계속 프리롤을 주면서 기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프리롤은 창의성과 골 결정력, 예측력, 판단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감독이 부여하는 역할이다. 프리롤로 뛰는 선수는 경기 흐름을 읽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뛸 수 있다. 프리롤로 뛰었던 선수들은 주로 메시, 호나우지뉴, 카카, 델 피에로, 토티 등 세계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들이다.

프리롤이 된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의 기대대로 마음껏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손흥민은 중앙과 측면, 중원과 최전방을 오가며 자신의 장점인 드리블과 슈팅을 시도했다.

이는 소속팀인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상황과 다르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에게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수비 때 최후방까지 내려가 상대 공격수를 막는다. 상대 공을 뺏어 역습이 시작되더라도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주해야 해 체력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콘테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페리시치를 왼쪽 풀백으로 중용하면서 손흥민으로부터 공간을 뺏었다. 상대 진영에 생긴 공간으로 질주하는 데 능한 손흥민이 페리시치의 측면 돌파를 위한 미끼 역할을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 가뭄에는 안와골절 후유증과 다른 팀의 집중 견제 외에 콘테 감독의 전술도 영향을 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어줬고 손흥민은 기대대로 마음껏 그라운드를 달리며 두 골을 터뜨렸다.

무안군청 검도팀, 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2020년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 이후 3년만에 우승

제27회 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을 차지한 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윗줄왼쪽) 이해솔, 손인준, 이광철 감독, 김태일 코치, 최병욱 (사진 아래왼쪽) 유하늘, 김한범, 이후성, 양동관, 임동영

무안군청 검도팀이 “제27회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3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무안군청 검도팀(감독 이광철)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 참가해 단체전 우승과 올해 입단한 양동관(24)이 3단부 개인전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남·여 25개 팀 1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무안군청은 단체전에서 수원시청(16강전)과 인제군청(8강전)을 각각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창원시청을 4:2로 꺾고 결승에서 구미시청을 만나 팽팽한 접전 끝에 3:1로 승리하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군청 지난 2020년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 이후 이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3년만에 “전국 정상“ 타이틀을 탈환했다.

개인전에서는 올해 입단한 양동관(24)이 32강전에서 이용진(광명시청)을 1:0(허리치기), 16강전에서 정영훈(광주북구청)에 판정승을 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전철영(구미시청)을 만나 머리치기로 두 점을 획득하며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황서현(인제군청)에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했다.

이광철 무안군청 감독은 ”3년만에 최정상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무안군청의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해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세한대학교 볼링부, 창단 후 전국대회서 첫 단체전 우승

세한대학교 볼링부가 ‘제4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전라남도볼링협회(회장 박종남)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4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경기에서 세한대학교가 창단 후 첫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총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월드컵볼링장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경기에서 세한대학교 강태영(21)과 김태훈(20)이 2인조 경기에 출전해 총점 2,785(평균 232.1)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5인조 경기에서 세한대학교 박대희(23), 강태영(21), 김태훈(20), 김호진(23), 이승빈(22), 송승민(22)이 출전해 합계 6,244점(평균 208.1)을 획득하며 5인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세한대학교 볼링부 창단 후 첫 단체전 우승이다.

김태훈은 개인종합 1위(합계 5,187점, 평균 216.1)를 차지하며 3관왕의 영광을 누렸으며, 강태영은 2관왕을 차지했다.

박종남 전남볼링협회장은 “어려운 훈련여건 속에도 이 같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와 경기에 임해준 김도형 감독·안상준 코치님,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한대학교 볼링부 단체사진 (사진 왼쪽부터 뒷줄) 김준상, 이승철, 박대희, 송승민, 강태영, 구성진 (사진 앞줄) 안상준 코치님, 이승빈, 김호진, 김태훈, 윤남일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